

지역 매 아리



김제시-동해시, 추석 맞이 지역 특산물 교류로 지역경제 활성화

김제시(시장 박준배)에서는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강원도 동해시와 지난 4일 매년 설·추석 명절에 지역 간 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추진하여 끈끈한 우의의 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김제시에서는 지역 특산품인 지평선쌀 등 11개 품목을, 동해시에서는 건오징어 등 15개 품목을 선정하여 상호 판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지역 간 특산물 판매 건수 총 632건, 총 판매금액 1900여만원을 교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목한 역할을 하였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동해시의 우리 지역 농산물 구매가 김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축제, 공연 등의 문화교류, 민간단체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교류와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금연성공 공감마당 활성화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4일 금연 클리닉 등록자중 6개월 성공자 및 금연 시도자들을 대상으로 금연이라는 공통의 목적으로 주민 주도적 모임을 구성, 금연성공 공감 마당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특별한 만남은 다양한 연령, 직업, 성격의 참가자들이 유대감을 가지고 금연 실천자를 서로 격려해주고 금연의 어려움, 동기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금연 자조모임의 활성화에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의 큰 관심속에 진행된 생활속 금단증상을 이겨내는 방법 일환으로 건강체조 따라하기와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연성과 평형감각 잡기등 간단한 동작이하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김제시 보건소는 그간 찾아가는 금연 건강캠프 운영과 다양한 금연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향상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15만 자족도시 기틀 박차

완주군, 2020년 주요업무 신규시책 보고회 개최

완주군이 15만 자족도시 도약을 향한 '2020년 주요업무와 신규시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업무 추진 준비에 착수했다.

4일 완주군은 지난 3일부터 박성일 군수 주재로 내년도 주요 사업과 신규시책 등에 대해 부서별 업무보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서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하고, 내년도 군정 업무 준비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

특히, 민선7기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도약을 위한 군정목표를 바탕으로 핵심공약, 3대 군정비전, 5대 핵심과제를 실행하고 정부정책과제인 플랫폼 경제, 혁신도시 시즌2,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소경제활성화, 지역발전 투자협약 등 주요 국책사업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년도는 완주테크노밸리2단계, 삼봉웰빙시티, 복합행정타운 등 15만 도시 기틀 조성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가시화 되는 해로 본 사업들이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역점을 들

계획이며, 국책사업화 할 수 있는 미래 신성장사업 발굴에도 더욱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북대도약 핵심프로젝트와 내년도 도정 역점시책 등 도정 운영방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군특 지방이양사업 등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2020년은 완주의 새로운 100년 미래 성장기반 준비와 15만 자족도시 도약 기틀을 완성해가는 중요한 해다"며 "부서간 소통과 민간 협업을 통해 내년도 핵심사업과 새로운 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은 완주 청년키움식당 5차 참가팀에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온기' 팀이 운영을 시작했다.

완주청년키움식당 '온기' 팀 운영

우석대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닭곰탕·돈가스·덮밥 등 판매

매번 새로운 청년들이 색다른 메뉴를 선보여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완주 청년키움식당의 5번째 주인이 새롭게 들어섰다.

4일 완주군은 완주 청년키움식당 5차 참가팀에 우석대학교 외식산업조리학과 학생으로 이루어진 '온기' 팀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음식을 그릇에 담겠습니다'라는 주제로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년키움식당에 참가해 창업을 한 '외식키움협동조합-우스키친'에서 근무했던 학생들로 구성된 한 층 성숙된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

이 팀은 온탕(닭곰탕), 온돈스(돈가스), 꼬꼬밥(닭고기덮밥), 돼지고기덮밥, 눈꽃샐러드(돈가스샐러드), 소고기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메뉴에 사용되는 식재료들은 완주로컬푸드를 주로 사용하며 현대인의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집 밖처럼 따뜻함을 담아 든든한 한

끼를 만든다는 포부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근 청년들의 창업 트렌드로 관심 받고 있는 외식창업에 청년키움식당이라는 인큐베이팅 공간을 통해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실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단순한 종업원의 역할이 아닌 경영주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더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월 완주군청 옆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한 칸으로 자리를 옮긴 완주 청년키움식당은 지리적인 단점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외부 관광객 등 현재까지 9000여명이 찾는 등 전국 다섯 곳에서 운영 중인 청년키움식당(서울, 천안, 완주)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시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와 함께 향교와 동헌내아 일원에서 모든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시내권 경제 활성화 행사 강화

김제시, 시내권 프로그램부터 야경까지 다양하게 진행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대한민국 글로벌축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와 함께 향교와 동헌내아 일원에서 다양한 시내권 프로그램을 마련 풍성하게 진행한다.

이번 김제지평선축제는 축제기간에 시내권 상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내권 행사를 강화하며 지평선 청소년 가요제, 전국 실버 장기자랑 경연대회, 지평선 초중고 백일장 대회, 지평선 트로트 페스티벌 등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또한 매년 벽골제에서 열렸던 방송사 공연을 시내권으로 옮겼으며 먼저 9월 28일 19시에 전주MBC 개막축하공연부터 10월 2일 19시 KBS국악 한마당, 10월 5일 JTV 가을밤 추억의 7080 콘서트까지 화려한 공연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9월 27일에 제4회 성산 빛 소통 문화 마당제가 열려 색다른 프로



김제시는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와 함께 향교와 동헌내아 일원에서 모든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램이 대기 중이며 10일간 성산공원 일대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빛의 거리, 미래로 거리, 그림자 포토존 등 아름답고 눈부신 김제의 걷고 싶은 거리를 다녀 볼 수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그동안 벽골제라는 한정적인 공간에서 더 넓게 확장하고 시내권 경제 활성화 위하여 시내권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많은 공연을 준비하였으니 김제지평선축

제가 오셔서 평생 잊지 못할 가을날의 멋진 추억을 만들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객이 뽑은 축제만족도 1위 축제에 등극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는 2019년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1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잊지 못할 낭만과 추억을 선사 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으뜸상품권 추석맞이 10% 할인판매

11일까지 13개 읍·면 농협서

완주군이 추석을 맞아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소득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으뜸상품권 특별 할인판매를 시행한다.

4일 완주군은 으뜸상품권 판매

촉진을 위해 오는 11일까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NH농협은행 완주군청 출장소와 13개 읍·면 농협에서 현금 및 카드로 구매 가능하다. 구매한도는 개인 최대 30만원이며,

단체(법인,기관)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단체(법인,기관)의 경우 구매처에 문서로 요청시 최대 300만원까지도 구매 가능하다.

완주 으뜸상품권은 지역 내 1450개소 으뜸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상품권 뒷면 QR코드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금산면, 태풍 링링 피해 최소화 총력

김제시 금산면(면장 소근섭)은 4일 가을장마 및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축산시설하천등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빠른 현장행정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5개 마을의 취약시 설점검, 금산 구월리 일대 및 수류권의 침수지역을 방문하여 태풍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농민들이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한해동안 팔려 버린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들과 현장에서 집중호우,강풍대비 피해 대응요령과, 피해보상대비 농업인 풍수해 보험

가입등을 안내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현장 행정을 추진함으로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

한편 오는 7일 10시30분에 개최되는 제29회 어울림한마당 축제 금산면민의날 행사도 가을장마와 태풍을 대비해 금산중고등학교 체육관으로 변경 실내 행사로 축소하며 주민들의 화합에도 적극 추진하고"앞으로도 면민들의 고충과 의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 행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